

2002년 9월 5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임용 15주년 기념대회 연설

존경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다섯 살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나이 열다섯 되면 호패를 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아마 당부하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일로 치면 이제 어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스스로 보람찬 일을 해오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자부심 느끼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과로로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는 이런 슬픈 얘기도 들었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도 그전보다는 좀 안정된 토대 위에서 또남들에게 떳떳하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숫자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져서 사회복지사 하면 이제 한참 대우받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듯이 사회적 발언권도 한참 높아서 이제 무시 못할 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자축하는 뜻으로 크게 박수 한 번! (박수소리)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업적을 자랑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내놓을만한 업적이라고 자부하고 싶은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의 기틀을 잡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도가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일선에서 고생하신 우리 사회복지 일꾼들이 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또 목소리를 높이 내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 수 있었을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항상 현실에 잘 맞지 않고 또 많은 저항이 있어서 그것이 현실로 정착하기 참 어려운 데 비교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과 잘 결합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성공은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민정부가 내놓을만한 자랑거리 하나를 기초하고 토대 놓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에게 아주 편안한 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안심하고 여러분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는지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숫자가 좀더 늘어난다는지 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남은 과제이자 소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수소리)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도 나오셨고 또 양당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모두들 자기 당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복지문제에 관해서 더 큰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나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재섭 최고위원도 그렇고 박종옥 위원장님도 물론 그러시고 우리 김성순 의원님, 윤여준 의원님도 계시네요. 여기 정동채 의원은 제 비서실장입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박수소리) 잘될 것입니다.

수해지역을 잠시, 잠시가 아니라 사흘간 다녀왔습니다. 차마 차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를 뺀이 가득 차고 집터가 자갈밭으로 변해있는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입이 부르토고 잠도 못 자면서 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국민들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뺨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는 경찰관 군인 그리고 공무원들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이 참 좋은 나라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믿고 자기의 운명을 의지 할만한 국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 바라보면서 마음 든든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의 경우 보험제도로써 어떻게 재난에 대응할 수 없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별다른 대책없이 정부의 약간의 보조에 의존해서 이 불행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간의 융자 약간의 감세·면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한국도 모든 재난을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간다는 그런 이상을 세워서 이제 국가가 최고의 보험자가 되어서 함께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첫째는 보험, 둘째는 국가의 보험, 세 번째 전 국민의 후원과 원정 이것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재난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복지제도에 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제도를 채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잘 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을 만들게 마련입니다. 또한 경쟁으로 도저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타고날 때부

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하자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쟁의 최후의 목표는 우리 국민의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과 복지의 문제를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놓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선택하는 질문을 이상 더 하지 말고 적어도 경쟁에서 약간 뒤진 사람들도 빈부의 격차를 좁혀서 함께 즐겁게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적어도 밥을 굶지 않게 해야 하고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게 해야 하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존재근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가의 책무에서 제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있는 그런 과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은 정부라는 논리가 오늘날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 일은 다 하는 효율적인 정부라야 합니다. 줄일 것은 줄여야하지만 늘릴 것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 다음 정부에서는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여기서 함께 소망하고 제게 기회가 있으면 저도 그 일을 열심히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